

인도 오리사, 불교관광 버즈(Buzz)마케팅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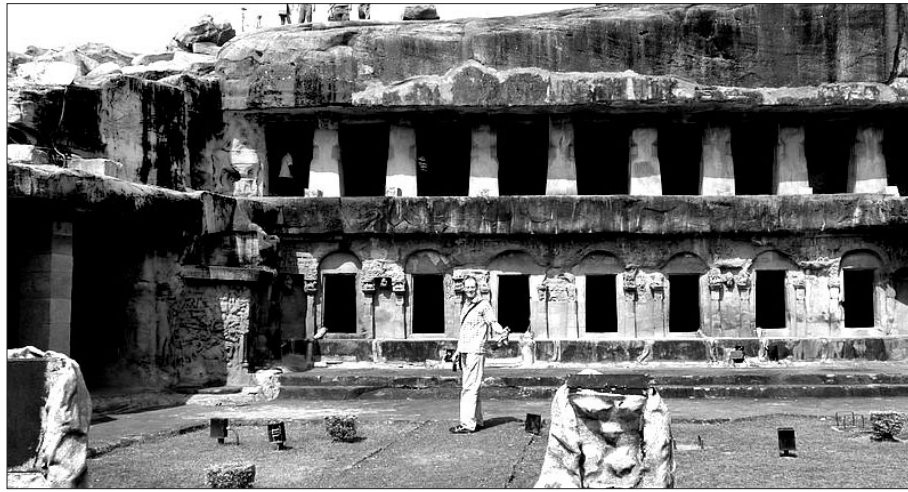
친환경 불교관광 벨트 '불교유산 산책로' 선보여

인도 동북부의 불교관광 성지를 꿈꾸는 오리사(Odisha)가 글로벌 관심을 다잡기 위해 친환경 불교관광 벨트인 '불교유산 산책로(Buddhist Heritage Trails)'를 선보였다.

《Indian Express》지는 12월 10일 "오리사가 주정부 차원의 관광 프로그램 '불교유산 산책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며 "이번 프로그램은 불교관광 성지로서의 오리사의 잠재성을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오리사는 숲한 불교유적에도 불구하고,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비하르(Bihar), 차티스가르(Chhattisgarh) 등과 비교해 관광객 사이에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Indian Express》지는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오리사 관광청은 '관광'과 '친환경'이라는 다소 생경한 단어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버즈(Buzz) 마케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버즈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에 대해 긍정적인 소문을 내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으로 주로 상품의 속성이 어우러진 키워드를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



인도 동북부 오리사(Odisha)에 위치한 칸다기리 석굴(Khandagiri caves). 약 2세기 경 만들어진 고대 스님들의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동굴·사원 포함된 10일 순례길 불교관광 성지 입지 다지려면 힌두교 순례지 선입견 넘어서야

오리사 관광청이 이번에 선보인 '불교유산 산책로'는 10일~15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라리트기리(Lalitgiri)의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 칸다기리 석굴(Khandagiri caves)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이아몬드 트라이앵글'은 사원 유적과 그 벽면을 빼곡히 메운 부조가 돋보이는 곳이다. 특히 라리트기리의 탑에서는 검게 탄 뼈 조각들이 발굴됐는데, 인도 학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허물어진 언덕'을 뜻하는 칸다기리에 있는 석굴은 약 2세기 경 만들어진 고대 스님들의 수행처로 알려져 있다.

오리사 관광청은 '불교유산 산책로'에 앞서 '신성한 순환길(Sacred Circuit)' '늘어난 신성한 순환길(Extended Sacred Circuit)' 등을 운영하고 있다.

《Indian Express》지는 "오리사 관광청

은 지난해 라리트기리를 방문한 인도인 관광객은 25,054명인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305명에 불과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내국인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관광지라면, 주정부의 홍보와 맞물릴 때 두드러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오리사 관광청의 '불교유산 산책로'는 홍보가 더해질수록 글로벌 시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오리사가 불교관광 성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는 지적도 없지 않다. 우선 오리사는 힌두교 순례지로 더욱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매년 수천여 명의 관광객이 동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지만, 불교와 관련해서는 네팔, 보드가 아예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인도를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교관광지 선호도 조사에서 오리사가 하위에 머물러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불교관광지로서 오리사의 장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Indian Express》지는 인도 주재 유엔 세계 관광 기구의 베즈바루아(Bezbaruah) 대표의 말을 인용, "오리사가 다른 경쟁적인 불교관광지보다 보드가거나 바라나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오리사가 꿈꾸는 '불교관광 성지'로서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P.E.I에 만발한 불연(佛緣)

대만 스님들, 비불교도 로린(Lorin) 추모



대만 스님들이 캐나다에서 포교하는데 도움을 준 현지인에게 공덕문을 전달했다.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이하 P.E.I)의 대만계 불교공동체가 지난달 세상을 달린 한 캐나다인의 추모식을 봉행하고, 그의 선행을 알리고 있어 화제다.

《The Guardian》지는 "P.E.I 불교공동체가 지난달 초 타계한 로린(Lorin)의 추모제를 봉행하고, 그의 아들 도용(Doug)에게 공덕문을 전달했다"며 "불교도 아닌 로린에게 공덕문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다.

로린과 대만 스님들은 4년 전 여름, 이웃으로 처음 만났다. 당시 대만 스님들은 본토 불교계의 지원을 받아 해외 포교를 위해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섬을 처음 방문했다.

싱추우(Xing Zhu) 스님은 "처음 포교를

시작한 우리 스님들에게 당시 로린의 도움은 구글(Google)보다 더 유익했다"며 "이것이 불자도 아닌 한 캐나다인에게 공덕문을 전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싱후이(Xing Hui) 스님은 "P.E.I에 사찰을 여는 불사가 어렵게 생각되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로린은 우리에게 시장을 찾아가는 길도 안내해주고, 그곳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좋은 차를 구입하는 방법도 조언해 줬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지난 4년간 스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기뻐했다"고 말하는 로린의 아들 도용은 "아버지의 역할을 나 역시 그대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샬롯의 참불교사, 순수 미국인 불심을 잡아라

중국계 불교공동체에서 인증 떠나 '지역 불교계'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개원 20여년 만에 지역 주민 중 순수 미국인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사원이 화제다.

《Charlotte Observer》지는 지난 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중국계 참불교사(Truth Buddhist Temple)가 개원 20여년 만에 중국계 미국인이 아닌 순수 미국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참불교사는 1990년대 초 샬롯의 주요 대로인 몬레 로드(Monroe Rd)가에 설립됐다. 개원 당시 지역 주민 중 중국계 미국인의 관심을 받았지만, 지금껏 순수 미국인 불자에게는 외면 당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순수 미국인이 일요일포교에 참석하기 시작하는 등 커다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무릎 꿇은 자세로 합장한 채 앉아 있는 일요일포교 참여자들 가운데 매년 2~3명의 순수 미국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한 《Charlotte Observer》지는 "참불교사는

4개월 전부터 법회 중간 중간에 영어로 법회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순수 미국인의 발길을 끌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풀이했다. "중국계 미국인이 주류인 사찰을 찾는데 저에게는 도전이나 다름없다"는 테드 호프러(Ted Hoffer) 씨는 "그러나 불교를 배우려는 의욕만큼은 나를 비롯해 이곳을 찾은 순수 미국인들 모두 대단하다"며 "우리는 보다 좋은 가르침을 받고 싶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불교 수행은 나를 평온하게 만들어 준다"는 매기 팬(Maggie Phan) 씨는 "내 경험에서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은 내 주변의 두려운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게 하는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매기 팬 씨는 지난 9월부터 일요일포교에 참여하고 있다.

"활짝 열려있고 그 인과를 유추할 수 있는 불교적 운명관에 끌렸다"는 팬 지앙(Fan Jiang) 씨는 "이처럼 불교적인 삶에 충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는다면, 일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있는 중국계 참불교사에 미국인 신자가 늘고 있다.

에서 어느 순간 닥치지도 모를 '불행'도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로 일요일포교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당초 이민 3세대 불자를 위한 배려였는데, 순수 미국인 불자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생각도 못했다"는 필립 추아(Phillip Chuah) 스님은 "이를 계기로 참불교사는 일요일포교 뿐만 아니라 중국어 및 영어 버전의 다양한 수행 및 신행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불교사를 찾는 불자들의 신심을 다잡아가겠다"고

말했다.

《Charlotte Observer》지에 따르면, 참불교사는 현재 일요일포교 참석자를 대상으로 점심 식사 이후에 '정법 연구(Dharma Study)'라는 신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부처님은 누구인가?'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올바른 호흡법' 등과 같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계는 물론 순수 미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495억원 짜리 탕카 경매서 낙찰

600여년 전 명나라 영락제 때 제작된 티베트 불화 탕카가 국제 경매에서 3억 4840만 홍콩 달러, 미화로 4500만 달러(한화 약 495억원)에 팔렸다. 사우사치이나모닝포스트는 11월 26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크리스티 경매에서 중국 상하이 금융재벌인 류이첸에게 이 탕카가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화제의 탕카는 지난 2002년 경매에서 미국인에게 3천만 홍콩달러에 팔리면서 불교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이번에 경매에서 팔린 탕카는 가로 213.4cm, 세로 335.3cm 크기의 비단 위에 대승불교의 명상의 신인 락타마라가 그려져 있다. 그림을 낙찰받은 류이첸은 "15세기 탕카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갈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몇 년 동안 내가 보유한 상하이 룽 미술관에 전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현불샵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9만원

입금계좌 : 동해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자품(10:07)	제14, 인력행품(27:27)	제15, 중지용출품(21:13)	CD08-제16, 미래수랑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회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육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요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정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둬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모범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01 제11 서품 39:25